

아주대학교병원소식지

발행인: 李成洛 편집인: 徐廷鎬 편집: 아주대학교병원 홍보과 ☎ 219-2948

발행인의 편지

지난 21일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커다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체제를 어떻게 갖출것이나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사회는 결정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과 의학연구소를 동일선상에 놓는 의료원체제로 결정이 났습니다. 철학이 있는 의과대학 및 부속 병원 설립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와 조금은 주저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택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의료원 체제란 환자진료는 물론 의학도들에 대한 교육, 의학자들의 의학 연구에 있어서 통합된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재벌들의 대형병원 설립의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결정은 아주대학교가 확실한 철학아래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될것입니다.

사실 어떤 체제를 갖출것이나 하는 문제는 병원 개원준비에 여념이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전에 다가온 개원을 앞두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이냐가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수시로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기도 수원이란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때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새로운 의료문화 창출을 위해 모였습니다. 환자 중심의 병원이란 커다란 명제 아래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한국의 의료문화가 왜곡되어지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료 취약지방인 수원에서 개선해 보고자 모였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신성해야 할 의료라는 명제가 본질을 벗어나는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개선해 보고자 모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의과대학과 병원의 교직원들을 위시한 모든 이의 단결된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임은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희생과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도 이런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도록 힘이 되어준 학교당국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李成洛



3월호

- 이사회 소식
- 임상교실 소개
- 전산시스템 소개
- 아주동그리 탐방
- 병원장 칼럼

아주대 의료원직제 의결

-21일, 법인이사회에서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지난 21일 제13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아주대학교에서의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체제를 의료원으로 통합시키는 정관개정(안)을 의결하고 25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날 오전10시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이사회는 아주대학교병원의 개원이 다가옴에 따라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를 가졌는데, 병원건립추진본부 기획부에서 올린 의료원직제를 이의없이 받아들여 결정하고, 의료원 직제규정, 직원 인사규정, 보수규정, 예산 및 회계규정, 기밀비규정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아주대학교의료원의 구성을 보면 의과대학과 병원 그리고 의학연구소가 의무부총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조직상으로는 의무부총장을 보좌하는 기구로 의료원의 기획, 예산, 홍보를 맡는 기획조정실과 총무, 인사, 관리, 구매, 경리, 시설업무 등 사무국을 총괄하는 기구로 행정처가 있다. 또한 부속병원에는 원장, 진료부원장, 내과부장, 지료지원부장, 관리부장, 교육수련부장을 두어 진료부원장 산하에 약제, 영양, 의무기록, 사회사업, 의용공학과를 두고, 의료지원부장 산하에는 간호행정, 간호교육, 병동간호, 외래간호, 특수간호, 환경물품관리과를 두었다. 원무과와 보험과는 관리부로 편성되었다. 이밖에 의료원 부속기관으로는 의학연구소를 두고 의학도서관은 의과대학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성낙 학장 유임

아주대학교는 의과대학 제3대 학장에 이성낙(李成洛) 현 학장을 3월1일자로 유임 발령했다. 90년 3월 아주대학교 초대학장으로 부임해 줄곧 학장업무를 맡아 온 이학장의 유임은 병원봉사실습제 등 인성교육을 실시해서 새로운 의학교육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아주의대의 기틀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김효규 총장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과대학 신규교원 임명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의과대학의 신규교원을 지난 3월1일자로 일차 임명했다. 이번에 신규로 임명된 의과대학교원은 병원 개원전까지 임상과목 각 교실별로 진료와 연구에 대한 준비를 하게된다 <4~6면참조>.

직원종합교육 본궤도 진입

병원개원을 앞두고 추진본부 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친절의 생활화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교육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있다. 부서별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직무교육과 친절 및 예절교육, 전산교육, 동질화교육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종합교육은 지난 12월부터 5월31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신규직원들이 대거 들어오는 3월부터 본격화 되고있다.

우선 직무교육은 각 부서 및 전문직종별로 해당부서장 및 과장을 중심으로 개원전까지 각부서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비롯하여 사무행정체계 확립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이 있게된다. 병원장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친절 및 예절교육은 교원 및 전공의 2백50여명이 5월21일에 일차로 병원교육실에서 받게되며 간호사의 경우는 자체 수습교육기간중에 나누어 실시하게 된다. 기능 및 행정직원의 경우도 개원전까지 적당한 날을 정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병원의 전산화 이용과 관련한 전산교육은 의사 및 전공의가 5월2일부터 25일까지 50명씩을 1조로하여 7시간씩 3일간 개인당 21시간을 받게되며 간호사 및 임상병리등 의료기사직, 행정직원의 경우도 조별 30명씩 16개조로 나뉘어 3월7일부터 5월11일까지 의과대학 지하교육장에서 개인당 24시간의 교육을 받게된다. 한편 직원간의 동질화를 위한 직원연수교육은 5월6~7일 대우연수원에서 1박2일로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다.

미군 121후송병원 관계자 방문

미8군의 121후송병원 관계자들이 지난 2월7일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캐이서 병원장, 어바워 진료부장, 호퍼 응급의학과장등 17명이

지난 1월의 121후송병원의 방문에 대한 답방차 아주대학교병원을 찾아왔다. 이번 방문에서 121후송병원 관계자들은 아주대학교병원의 시설과 규모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환자중심의 병원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했다.

소아비만캠프 개최

아주대학교병원 소아과의 홍창호 교수와 영양과, 사회사업과는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와 공동으로 소아비만 환자의 치료를 위한 소아비만 캠프를 지난 21~23일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했다. 국민학교 4~5학년생 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아동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행되는 확률이 높다는 점과 관련해서 소아비만 환자의 치료 및 실생활에서의 예방수칙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열렸다.

의과대학에서 수석졸업

아주대학교 졸업식에서 영예의 전체수석을 의과대학 정용식군이 받았다. 지난 22일 아주대학교 본교대강당에서 개최된 졸업식에서 정군은 수석졸업의 영광을 안았는데 의과대학의 경우는 16명이 첫번째로 의학사 학위를 받았다.

교원 및 추진본부 직원 상견례

의과대학의 교원과 추진본부 전직원의 상견례가 3월2일 선인재에서 있었다. 이날 오후4시부터 열린 상견례에는 신규교원 46명등 교원72명과 추진본부 부서별 관리자 58명등 1백3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성낙 추진본부장은 인사를 통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가 협력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의료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되어줄것을 당부했다. 이어 황중익 법인사무이사의 학교법인에 대한 소개와 행정처장, 기획실장의 인사가 있은후 기초학교실, 임상각과에 대한 스텝소개와 추진본부 각부별 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소개가 끝난후에는 김효규총장의 교직원에 대한 당부인사가 있었는데 김총장은 신설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으로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안다면서 아주대학교가 평범한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만큼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을 이겨달라고 당부했다.

SCI(과학논문색인지)에 관한 특강

SCI를 통해 본 한국의학논문의 국제적 위상이란 주제의 특강이 의과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개최된다. 강사는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도서관학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을 준비중인 이춘실여사이다. 일시는 21일 오후 4시, 장소는 제1강의실이다.

의료이용 행태 설문조사

추진본부 사회사업과는 3월중순 수원지역을 중심으로한 의료이용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수원지역 주민의 의료이용 형태와 욕구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될 이번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리방법과 의료이용을 결정하는 요소 등을 알아보게 된다.

2월 정기 교양교육 실시

추진본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2월 정기 교양교육이 3월4일 본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30분 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에는 추진본부 직원외에 신규 임용예정 간호사들도 참석하여 경영대학원 황의록 교수의 "병원에서의 마케팅"이란 주제의 특강을 듣고 이어서 총무과장의 사회로 임상 각 교실 주임교수와 3월1일자 신규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병원건물에 못질 불허

지난 2월8일 열린 제3차 병원재료 및 비품준비위원회는 아주대학교병원 추진본부의 병원입주가 다가옴에 따라 병원에 함부로 못질을 하지 말 것등 몇가지 당부사항을 결정했다. 동위원회는 신설되는 아주대학교병원 건물의 유지와 미용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병원장의 건물이용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못질을 하지 말것을 추진본부 전직원이 숙지해주시기를 당부했다. 병원 입주와 관련해 사무실 내부에 손질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지침이 나올때까지 관리과의 협조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교실별 특성과 집중 연구과제

아주대학교병원 특성은 우선 내과를 10개 전문분야의 독립된 내과로 세분화시키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고 각 임상과목 주임교수의 주도아래 교실별 집중연구과제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개원초기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소화기내과

이상인 주임교수의 주도아래 위, 간장, 담도 등 소화기관 전체를 진료영역으로 하면서 연구의 중점은 위장관운동과 호르몬의 관계, 헬리코박터-피로리라는 위장내 박테리아에 관한 연구, 위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연구에 우선적으로 교실의 역량을 집결한다는 방침이다. 간질환에 대해서는 특수클리닉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순환기내과

지난 88년 서울올림픽때 미국의 NBC 방송단의 주치의로 내한했던 최병일 박사를 축으로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 및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있는 최병일 교수를 미국 국립보건원 초청연구원으로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심장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영상으로 표현되는 심도자 검사, 심초음파 검사, 심장 핵의학 검사, 심전도에 대한 각종 검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관상동맥 풍선확장 성형술, 풍선판막 성형술, 스텐트, 관상동맥내 절삭술 등 출혈과 통증이 적은 첨단치료를 최신 장비를 이용해 시술하게 된다. 특히 최교수를 받치고 있는 탁승제 교수가 연구에 많은 열의를 보이고 있다.

호흡기내과

미국에서 일반내과, 흉곽내과, 중환자내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미시간주립대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지고있는 한명호 박사를 중심으로 폐암 등 폐질환에 대한 진료와 연구에 집중적으로 힘을 모을 생각이다.

내분비대사내과

당뇨병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김현만 교

수를 축으로 하여 당뇨병 클리닉, 갑상선 클리닉 등을 운영하여 이들 환자를 전문적으로 집중 치료 관리하면서, 개원 초기 연구과제로는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의 발병에 관한 연구와 노인병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장내과

캐나다 토론토에서 두번째로 큰 종합병원인 크래딧밸리병원의 혈액투석실 책임자를 맡았던 김도현 교수를 주임교수로 받아들였다. 신장질환자의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에 있어서 김교수의 경험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병원의 장기 이식수술 육성방침과 관련해 신장이식의 경우 일반외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추게 된다.

혈액종양내과

기존의 혈액종양내과를 혈액내과와 종양내과로 분리시킨다는 방침아래 혈액학에 대해 기초, 임상의학적으로 많은 연구결과를 갖춘 미국 존슨 메디칼 스쿨의 김효철교수가 초대 주임교수를 맡았다. 특히 세계적 암센타인 엠디 앤더슨 암센타의 성주명 교수가 김교수의 뒤를 받침으로서 혈우병, 백혈병, 임파선종 등 혈액질환의 치료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연구에 있어서 분자혈액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병원 당국은 무균병실 6병상을 마련하여 골수이식 수술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분리하게 될 종양내과의 경우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연세의대의 임호영 교수가 일찍 부터 자리를 잡고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독립된 임상과목으로 개설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지만 암환자에 대한 약물치료를 일차적으로 담당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병의 완치까지 꾸준히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생각이다.

소아과

홍창호 교수는 이미 연세의대 시절에도 국내 청소년 의학의 필요성을 주창해 온 의학자로서 소아과 분야에서는 독특한 자리매김을 받고있다. 소아비만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있는 홍교수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도 정신적으로나 사회

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청소년의 의학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정립 할 것으로 보이며 소아신경학 전공의 김성환교수, 소아신장학 전공의 배기수교수, 알레르기 전공의 이수영교수와 함께 팀을 이루어 소아과학 특히, 신경학과 알레르기학에 대한 연구를 폭넓게 시행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신경과

초대주임교수를 맡은 허균교수는 국내에서 난치병으로 인식되어 온 간질의 치료 및 연구에 있어서 젊은 나이에도 독보적인 위치를 가진 의학자이다.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도 간질클리닉을 개설하여 이들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연구를 수행함은 물론, 치매 등 신경과학 분야의 여타 질환에도 많은 관심과 연구를 병행할 책임을 맡고있다.

정신과

국내 정신질환자중 불안과 공포를 심하게 느끼는 공황장애환자 치료에 독특한 이론을 쌓아 올린 이호영 병원장이 초대 주임교수이다. 정신과의 경우는 특히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낮병원의 운영을 적극 도모 할 방침이며, 인지행동치료와 가족교육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정신과학의 연구와 관련해서는 정신보건 등 사회정신의학 분야에서 비교문화학적 접근 등을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이고, 생물 정신의학과 관련해서는 불안장애에 대한 생리학적, 행동과학적, 유전학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부과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베체트병의 대가로 알려진 이성낙 학장을 축으로 하여 강원형 교수가 주임교수의 중책을 맡았다. 강원형교수는 땀샘의 생리학적 연구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현대인이 점차 안면피부에 관심이 높아짐을 감안하여 색소세포의 세포생리학적 연구를 통해 기미, 백반증의 치료방법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피부질환에 대한 기초, 임상의학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국제적으로 우수한

연구결과를 성취하겠다는 열의가 대단하며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레이저를 이용한 광의학적 접근 등 최신 치료방법이 선보이게 된다.

일반외과

신설 대학병원으로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충원되는 일반외과 인력은 타병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연세의대에서 간, 담도분야에 많은 관심을 경주해온 김명옥 교수를 초대 주임교수로 영입한 일반외과는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등 소화기관 암과 장기이식에 집중적으로 달려붙을 인력으로 폭넓게 구성됐다. 두경부질환 분야의 소의영 교수, 소화기 암의 조용관 교수, 소아외과의 홍정 교수, 간이식 등 이식분야의 왕희정 교수, 하부위장관 질환의 서광욱 교수가 김교수를 중심으로 막강한 팀워크를 이룰 전망이다. 치료의 원칙은 진단은 물론 수술 후의 추적 단계 까지 팀웍 작업을 이룩한다는 것이며, 임상 의학적인 연구에도 많은 기대를 걸고있다.

흉부외과

흉부외과는 심장질환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치료 및 연구에 집중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신경외과

신경외과는 두경부종양에 깊은 관심과 연구능력을 보여온 조경기 교수를 주임교수로 하여 이들 뇌질환에 3차원적으로 접근하는 뇌정위적수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간질환자의 수술적인 치료와 관련해서는 신경과와 협진하는 형태를 띠게된다.

산부인과

산부인과는 미국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연세대 교수를 역임했던 제일병원의 오기석교수를 초대 주임교수로 영입했다. 부인과종양, 불임, 부인과질환 등을 폭넓게 다루게 될 산부인과의 집중연구 방향은 오하이오주립대학의 유희석교수가 종양에 대해, 펜실베이니아대학의 권혁찬 교수가 불임에 대해서 분자생물학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스턴 버지니아메디칼스쿨의 김석중 교수는 내시경을 이용한 부

인과질환의 치료 및 내분비학 연구에 주력할 방침이다.

안과

유호민 주임교수는 망막질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온 의학자로서 망막색소상피와 망막외층질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개원초기 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백내장, 녹내장 및 각종 안과질환에 대해 3차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있다.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는 중이질환에 남다른 의욕을 보여온 박기현 교수를 주임교수로 안면신경학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박홍준 교수가 뒤를 받치고 있다. 난청환자에 대한 중이, 내이, 안면신경에 대한 형태학적, 면역학적, 면역조직화학적, 분자생물학적인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는 난청센터를 구상하고 있다.

비뇨기과

비뇨기과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이용한 신요로결석의 치료 및 방광암, 전립선암 등의 종양에 치료역량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비뇨장애와 성기능 장애, 소아비뇨도 치료 및 연구의 대상이다. 김영수 교수가 초대 주임교수이다.

재활의학

재활의학과는 미국 원호병원 재활의학과장을 역임한 이일영박사를 초대 주임교수로 내정해 손상환자에 대해서 사회복귀 능력을 최대한 도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다. 진료방침은 모든 손상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장애평가제를 도입하여 치료에서 부터 퇴원까지 다각적이고도 전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전제로 포괄적인 재활치료가 이뤄지도록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특수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며 치료사의 경우에도 전문성을 도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마취과학

마취과학은 연세의대의 이영석 교수를 주임교수로하여 중환자실 및 임상 전과목의 수술 및

통증치료에 최대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주대학교병원의 경우 응급환자 및 중환자가 타 병원보다 많을 것에 대비해 마취와 관련한 시술 및 회복에 완벽을 기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통증치료와 관련해 특수클리닉의 개설도 주목되는 분야이다.

진단방사선학

진단방사선학은 최첨단 진단장비인 MRI, CT 중에서도 가장 개선된 장비가 도입됨으로서 철저한 진단시스템을 갖추게 되며, 한편으로는 환자의 대기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신경계 진단에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서정호 기획실장을 축으로 중재적 방사선술을 시행할 김선용 교수, 핵의학과 소아방사선학을 담당하게 될 김옥화 교수, 흉부전공의 박경주 교수, 복부전공의 지훈 교수와 이은주 교수 등이 서교수의 뒤를 받치고 있다.

치료방사선학

치료방사선의 경우는 아주대학교 병원이 집중 지원 할 과목으로 선정한 암치료와 관련 10년동안 미국에서 부인과 암 및 뇌종양에 많은 연구와 진료를 실시한 존홉킨스대학의 전미선 교수를 주임교수로 하여 역시 미국에서 Ph.D를 획득한 강해진 교수가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최첨단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에게 커다란 고통없이 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접치료에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임상병리학

임상병리학의 경우 케이스위스턴리서브 대학에서 동맥경화의 생화학적 연구에 많은 논문을 발표한 곽연식 교수를 주임교수로 질환에 대한 정확한 검사 및 최신진단법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다른 대학병원에서 취약한 특수검사에 대해 임상화학, 혈액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각 분야별로 집중 개발한다는 각오이다.

WILL YOU COMMIT LARCENY TODAY?

You may be committing larceny and not even know it. You could be stealing from someone important to you. Two of the most important equities you have are money and time. If you steal money and get caught, you suffer. If you steal time, someone else suffers. When you have a date at 9 o' clock, be there at 9, not 9:15. Otherwise, you have stolen 15 minutes. your theft can push everybody back. The person scheduled for 5 o' clock may be bumped and have a tough time getting rescheduled. Put yourself in his position and perhaps you won't be late. If you're the person being robbed, hand this page to the thief.

어쩌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훔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의 재산은 돈과 시간입니다. 돈을 훔치다 붙잡히면, 벌을 받는 것은 당신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훔치면 다른사람이 벌을 받게 되지요. 9시에 약속을 했으면 9시에 그곳에 가세요. 9시 15분은 아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남의 15분을 훔친 것이 됩니다. 당신의 그 도둑질은 모든 사람을 늦게 합니다. 5시에 약속했던 사람은 어쩌면 시간에 쫓기어 만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고 다시 그와 다음을 약속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당신은 이제 늦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 쪽이 도둑 맞은 쪽의 사람이라면 이 페이지를 그 도둑에게 건네주세요.

당신은 오늘도 또 도둑질을 하시겠어요?

병원 전산시스템 소개

아주대학교병원이 개원초부터 운영하게 될 전산시스템이 국내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간 국내의료기관의 실패경험에 비추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외부의 우려가 많다. 아주대 전병원의 전산개발부의 밤은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라도 하듯 낮처럼 밝기만 하다. 아주대병원의 전산시스템을 간단히 소개한다.

ATOM의 시작

병원 건물 콘크리트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92년 초겨울 산세 좋고 공기맑은 충청도 가야산근방 한 구석에서는 병원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발전적인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방향과 국내제일의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워크숍이 밤늦도록 열띤 토론을 거치면서 아주대학교 병원정보시스템 일명ATOM (Ajou Total Medical Information System)을 잉태하기 위한 개발작업이 대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기본적인 개발방향은 첫째로 시스템구축으로 환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능률적인 원무행정 처리, 연구 및 통계용 진료기록의 유지, 진료의 정확성 제고 및 컴퓨터에 의한 교육 훈련을 통한 진료행위의 질적 향상을 시키는 것이고, 둘째로는 의료수가 계산, 신속한 보험료 청구, 미수금 발생을 억제하고, 경비절감 및 인력수용 억제를 통하여 병원의 수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개발방향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진료기록의 축적 및 다양한 조회를 통해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각종 검사결과 및 축적된 처방조회 시스템 그리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처방전달 체계 (Order Communication System) 확립이 이루어져야 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각 기능별로 발생하는 자료를 적절히

통합 또는 분산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료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둘째는 자료의 조작, 검색, 분석 및 통계를 통해 필요한 시기에 유용한 정보로 가공할 수 있는 정리된 정보처리 체계를 마련하여 이들 각 기능간에 정보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스템 구성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때 병원 전산시스템 기본방향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분산처리시스템으로는 Client-Server환경을 채택했으며, Hardware는 Server 18대, Workstation 167대, PC가 250대, 프린터 및 기타 주변장치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Computer가 설치된 곳이면 어느곳에서든지 빠른시간내에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내제일의 시스템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네트워크는 지하2층에서 최상층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중간층 개소마다 네트워크상 데이터 흐름의 교통정리 역할을 하는 브라우터를 5대 설치하여 DATA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져 SYSTEM에서 업무수행 처리능력 (Performance)이 극대화 되도록 네트워크 구성을 배려하면서 향후 국가보건 전산망, 의료보험연합 및 해외 교육연구센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Data를 주고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였다. 그리고 병원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Client들 즉, PC나 Workstation에는 정보시스템의 에이즈 (AIDS)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언제 어느곳으로 부터 감염되어 병원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Data를 파괴시켜 병원운영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고, 진료관련 중요한 Data가 PC나 Workstation의 플로피 디스켓 드라이버를 통해 디스켓에 담겨져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노출되어 있어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를 모두 제거하였다.

또한 임상병리 검사장비, 약국전광판, 약자동조제기 및 환자 ID카드 발행기와 시스템 컴퓨터 (Server)간에 Interface를 개발하여 검사결과나 약조제 결과, 약번호 그리고 환자 ID카

드 발행시 기초 Data를 진료행위시에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은 병원정보체계의 특성과 본 대학병원의 환경을 고려하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맡은 대우정보시스템(주)과 유니스스 그리고 추진본부 전산개발부가 어려운 조건에서 수많은 업무분석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Design된 내용을 프로그램 작성전에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여 완벽한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병원정보시스템상에서 환자가 내원하였을때 업무의 흐름이 환자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외래와 입원으로 크게 나누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외래환자의 경우

우리병원을 찾는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병원 입구 안내소에서 안내를 받아 환자 ID카드발행 창구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이 기입되는 ID카드를 발급받고 대기번호 발행기에서 대기번호를 뽑고 진료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창구 대기석의 번호표시창에 자기번호가 나타날때 까지 기다린다.

환자는 자기번호가 접수창구 번호표시창에 나타나면 진료신청서를 가지고 원무과 접수창구로 가서 진료신청서를 제출하고 진찰비를 지불한다. 이때 구환(우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력환자)인 경우는 의무기록실로 의무기록지 제출신청서가 출력되어 의무기록실에서 수시로 각 외래 진료과로 의무기록을 보낸다.

진찰비를 지불한 환자는 영수증 뒷면에 소개된 해당과의 접수장소를 찾아가 각 과 접수에서 ID카드를 이용하여 자기의 진료순서가 몇 번째인지 확인한 후 (혹은 게시된 진료순서를 확인할 수도 있음) 자기 차례가 오면 각 과 접수요원의 도움으로 해당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는다.

ID카드 하나로

이때 의사는 환자의 ID카드를 읽혀 Workstation 화면에 환자의 기본사항을 확인하여

진료를 마친 후 마우스나 키보드(거의 사용 않함)를 사용하여 처방을 낸다. 예를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 검사(혈액조사), 투약처방을 낸 경우 환자나 보호자는 원무과 수납창구로 가서 해당금액을 지불한 후 약번호가 찍힌 영수증을 수령하게 된다. 이때 약처방이 약국으로 전달되어 약국 프린터로 약처방전, 약봉투, 라벨이 출력되며 약자동조제기로 조제가 가능한 약인 경우엔 약자동조제기로 조제할 약 내용이 전달되어서 약이 자동 조제되어 나온다. 약조제가 완료되어 약국에서 완료를 등록하면 약국 전광판의 해당약 번호판에 불이 들어오고 환자는 투약구에 영수증을 보이고 약을 수령한다.

주사는 환자가 주사실로 가서 간호사에게 ID카드를 제출하고 간호사가 환자 ID카드를 컴퓨터로 읽어서 수납 여부가 확인되면 주사하게 된다.

방사선 촬영은 환자가 수납후 해당검사실 접수로 가서 ID카드를 제출하면 검사실 접수 담당자가 모니터로 검사내용을 확인한 후 지정하는 검사실로가서 촬영을 하면된다.

임상검사는 환자가 수납후 채혈실로 가서 ID카드를 제출하면 채혈사가 모니터로 검사내용을 확인하고 채혈을 하게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마친후 환자는 귀가하여 의사와 예약한 일자에 오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

담당의사에 의해 입원결정 등록이 되면 원무과에서는 입원예정자를 조회하여 입원등록과 병실을 배정한다. 환자는 원무과에서 입원수속을 마친후 해당병동 간호사실로 가서 ID카드를 제출한다. 간호사가 ID카드를 컴퓨터로 읽어 모니터상에서 입원등록 확인을 한 후 환자는 간호사의 안내로 해당병실의 병상에 입실하게 된다.

퇴원환자의 경우

의사는 퇴원예정이거나 퇴원이 확정된 환자의 관련 퇴원정보를 등록한다. 퇴원이 확정된

후 의사가 퇴원결정 및 퇴원일을 등록하면 원무과로 퇴원환자 명단이 출력된다. 퇴원이 확정된 환자는 원무과로 가서 퇴원진료비를 수납하고 영수증을 수령한 후 간호사로부터 퇴원약 복용법 및 퇴원시 안내사항을 듣고 최종 퇴원한다.

위와 같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컴퓨터를 연결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수작업 업무를 전산화하고 반복되는 수작업 업무를 줄임으로써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내부적으로도 업무처리에서 신속 정확성을 제고하고 환자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진료 서비스를 할 수 있어 대외적인 병원경쟁력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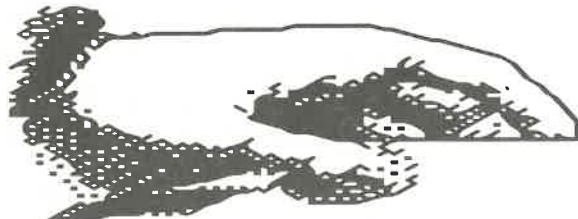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지닌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전산개발부 김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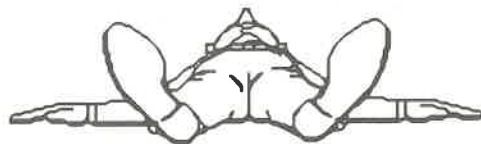
알 린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과 포토클럽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진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좋습니다. 서로 배우는 입장에서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마음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3월 19일까지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겠습니다. 홍보과 이규성 (219-2948)

** 소식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며 수시로 홍보과에 연락을 주십시오. (219-2948)



"컴퓨터는 누워서 떡먹기 !!"



이런 모임 저런 만남

-아주 동그리(볼링동우회)

‘우와! ~웬일이니!’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어거지로 친 후 칭찬반 놀림반의 환성을 들으며 레인을 빠져나오면 그저 쑥스럽기만 하다.

국민학교 학창시절 때부터 특별활동 시간이 들어있던 수요일은 내가 좋아하는 요일이며, 직장을 갖고서도 볼링동우회가 수요일에 있어 더욱 기다려지는 요일이 되었다. 매 둘째 네째 수요일 아침은 볼링화와 볼링에 필요한 옷가지 등을 챙기느라 분주하면서 마음이 들뜨다. 사무실에서 하루에 말 한마디 건네보기 어려운 직장 동료들과 친숙해 질 수 있으니까.

우리 아주대학교병원의 볼링동우회 명칭은 「아주동그리」, 순수 우리말로 만들어 보자는 의도를 갖고 볼링공의 이미지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둥글게 갖자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아주동그리」 모임이 있는 수요일 점심시간 쯤에 총무과 박선생님은 TV에 나오는 진공청소기 CM Song을 흥얼거리신다. ‘동그리가 둥글둥글

「아주동그리」가 결성된 것은 몇몇 직원들이 가끔 모여 볼링을 치다가 직원이 늘어나는데 그때 까지도 이렇다고 할 동우회가 없으니 볼링동우회를 만들자는 의견이 모여 1993년 12월 7일 발족되었다. 현재 회원수는 의과대학생 1명을 포함하여 26명이다.

「아주동그리」에는 초보자가 많지만 그동안 꾸준히 볼링을 애호하시던 분들도 있어 나의 나쁜 투구자세에 대하여 충고를 해주신다. 3개월 동안 내 투구자세는 많이 좋아졌다. 다른 회원들도 빠른 실력향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남의 충고를 평소에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 들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자아성찰의 기회도 주어져 점점 볼링에 대한 애착을 느낀다. 이 밖에도

볼링동우회에 가입을 하여 얻은 이점이 있다.

우선은 레인배정을 받으려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게임비가 일반회원 보다 싸다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볼링은 실내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계절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아무때나 즐길 수 있으며, 나쁜자세를 교정해 주기도 한다. 더우기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그 순간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짜증이나 화를 내지않기 때문에 그 순간만이라도 웃으면서 몇년 더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속부서 이외의 직원을 일이 아닌 인간적으로 만날수 있다는것이 장점 중에 장점이다.

이쯤하면 「아주동그리」에 가입하고 싶은 분이 많을 것 같다. 「아주동그리」의 문은 넓게 열려 있으니 가입을 원하는 분은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는 구매과 이호원선생님에게 언제든지 가입신청을 하시길 바란다.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이지만 볼링은 욕심을 생기게 하면서도 과욕을 하면 잘 안되는 스포츠이다. 욕심껏 투구하면 여지없이 불이 고랑으로 빠져버리고 만다. 마음을 비우면 깨끗하게 정열된 10개의 핀이 시원한 소리를 내며 날아간다. 그러면 속이 후련해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사람이나 酒로 푸는 것보다 이렇게 신나는 스포츠를 통해 풀어보는 것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경리과 오은영



병원장 칼럼

어떤 기관의 일부가 되어 오랜 세월에 걸쳐 관계를 맺겠다는 의지가 있어 지원했다면 그 기관을 위해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의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직의식"이다.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지만 의사보다 "조직의식"이 희박한 직업인이 없는 것 같다. 나의 몸 어떤 기능에 이상이 있나 불안해 하는 것 같이, 또는 내 집의 누가 혹시 불행한 일에 봉착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우리 의사들은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병원장이나 또는 어떤 행정을 맡은 사람이 아니면 병원의 어느 구석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병원의 상(像)이 어떻게 바깥 사회에 비춰지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관심조차 두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내가 배우자에게서 얼마나 사랑을 받을 것인지 큰 기대도 갖지만, 또 그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베풀 것을 다짐하고 각오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새로운 기관에 취직을 했을 때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봉급이나 기타 대우 등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지만, 내가 그 기관을 위해 얼마만큼 공헌하고 정성을 쏟겠다는 다짐을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전통적인 가족주의 사회에서 집밖에 나가면 금방 서로가 남이 되어 소속의식을 잃은 우리의 바람직하지 않은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어느 조직에 속하거나 전체 시스템의 일부분이면서 동시에 상하체계와 연결되어 있고 어느 한 부분이 마비되면 그것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기관에서 일할 때 자기의 위치가 어떤 큰 조직의 하부조직인 동시에, 이 하부조직이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일부인데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만을 따로 떼어 놓고 일하는 경향이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새로이 건립되는 병원이고, 이곳에 들어온 직원들은 이 기관의 일부가 되어 오랜 세월에 걸쳐 관계를 맺겠다는 의지가 있어 지원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병원 안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도 관심을 쏟아야 하고 이 기관을 위해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의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직의식"이고 이같은 의식이 우리들의 마음에 살아 있어야 이 병원이 발전할 수 있다. 불행히도 이 "조직의식"이 약한 국민이 한국인이요, 또 약한 직업인이 의사이다.

우리병원이 환자를 위한 정성이 넘치는 친절한 병원이 된다는 조직목표를 세웠으면 우리 직원은 예외 없이 이 과제의 책임을 느끼고, 그런 병원이 되기 위해 각자가 모두 우선 그렇게 되기 위해 변신해야 한다. 지하실 주차장의 한 구석에 쓰레기가 있는 것을 보았으면 이것을 묵과하고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라 책임을 느끼고 이를 치울 수 있는 조직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현대인을 두고 마음속에 구멍이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면 이같은 구멍이 없는 원숙한 현대인으로 자부할 수 있어야 한다.

李 鎬 榮